

애국문화운동가들의 경제사상과 그 진보성

부교수 김 옥

1. 서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식민지로 전락되고있던 우리 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여 근대경제학을 체계화하려고 하였습니다.》(《김정일전집》 제7권 360페이지)

애국문화운동가들의 경제사상은 19세기말~20세기초 우리 나라에서 급속히 발전하고있던 자본주의적경제관계를 옹호하고 민족자본가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나온 경제사상이다.

19세기말 우리 나라의 사회형편은 매우 복잡하였다. 봉건통치배들의 부패무능과 외세의존정책, 투항주의적약점을 리용하여 외래침략자들은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침략의 마수를 깊이 뻗쳤다. 특히 일제는 1894년 갑오농민전쟁을 계기로 우리 나라에 대한 군사적침략을 더욱 강화하였다. 일제는 1905년에 《을사5조약》을 허위날조하고 우리 나라를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러한 시기에 애국문화운동가들은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 낡은 봉건제도를 근대적으로 개혁할데 대하여 제기하였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일제의 침략과 략탈, 봉건통치배들의 매국배족행위를 반대하고 국권회복을 이룩하며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보장하여 나라를 독립하고 근대적발전을 이룩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은 학교를 세워 청년들에게 실업교육을 실시하고 근대적문명과 과학을 보급할것을 주장하였으며 출판물을 발간하여 경제발전에 필요한 지식을 보급할것을 제기하였다.

론문은 낡은 봉건제도를 근대적인 사회경제제도로 개혁할데 대한 애국문화운동가들의 경제사상의 진보성을 과학리론적으로 론증할 목적으로 집필하였다.

2. 본론

애국문화운동가들이 제기한 경제사상과 견해들에는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봉건적관계를 청산하고 근대적인 사회경제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방도들을 제기한것과 같은 진보적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경제학의 개념과 연구대상을 확정하고 해명한 과학적요소도 있다.

애국문화운동의 대표자들은 박은식(1860-1926), 장지연(1864-1921), 신채호(1880-1936), 주시경(1876-1914), 리준(1859-1907), 량기탁(1871-1938), 리상재(1850-1927) 등이였다.

2.1. 민족산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견해

애국문화운동가들은 일제에게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독립하는것은 자강여하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자강의 방도를 인민들의 정신을 깨우치는 교육의 발전과 나라의

부를 증진하는 식산흥업(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업을 흥하게 한다는 뜻)에서 찾았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식산흥업은…국부증진하는 근원》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당시의 시대를 약육강식, 우승열패의 시대로 특징지으면서 이러한 시대에 제국주의열강에 기대를 거는 것은 남에게 먹히우는 길이라는것을 강조하고 봉건통치배들이 나라의 자연부원과 토지를 넘겨주고 팔아먹는것은 매국배족적인 행위라는것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약탈의 대상을 경제력이 약한 나라로 보았다.

이로부터 애국문화운동가들은 식산흥업을 자체로 실현해나갈것을 주장하면서 그 방도에 대하여 제기하였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리권, 토지매매를 통하여 나라의 자연부원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리용권을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겨서는 민족산업을 자체로 발전시킬수 없다고 하면서 외국인들에게 이미 허가한 리권을 도로 찾고 자연부원을 개발리용하는것을 전적으로 국내국민의 사업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에게 리권을 넘겨주는것은 자체의 민족산업발전을 억제하는 근본요인이며 경제적으로 예측되게 되는 원인이라고 까밝혔다. 그리하여 그들은 산업분야에서 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리권을 도로 찾고 민족산업을 자체로 발전시키며 나라의 땅을 지킬것을 호소하였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식산흥업으로 실력을 배양하자면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장려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보호간섭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결합할것을 주장하였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문명기술인재들을 양성할데 대하여서도 제기하였다. 그들은 식산흥업은 선진기술과 경영방법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 인재들에 의해서만 성과를 달성할수 있다고 하면서 《산업을 진흥코저할진대 불가불 급속히 농공상학교를 널리 설립하고…기술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어야 하며 식산흥업을 장려하며 공학자로 하여금 물품의 제조와 기계의 사용법을 연구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식산흥업에 대한 애국문화운동가들의 경제사상은 당시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된 우리나라의 조건에서는 실현될수 없는 공상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견해는 애국애족의 지향을 담은것으로서 민족자본가들과 인민들을 각성시키고 반일사상과 애국주의, 민족자주의식을 심어주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2.2. 경제를 근대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견해

19세기 후반기 우리 나라에서는 지역과 지역사이의 시장적연계가 확대되면서 전국적규모에서 시장망이 형성되게 되었다. 이것은 상품화폐관계발전의 필연적결과였으며 자본주의적경제관계의 수립을 위한 필수적전제였다.

19세기 후반기 장들은 종래의 협소한 지방적범위를 벗어나 점차 비교적 넓은 지역을 포괄하게 되었다.

장들의 시장적연계가 전국적범위에서 확대되고 상품류통이 늘어남에 따라 상인들의 활동범위도 확대되었다. 시장적확대의 주되는 담당자는 상인들이며 상인들의 활동범위의 확대는 시장령역의 확대를 더욱 촉진하였다.

시장관계의 발전과 상인들의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상인들내부에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심각한 분화과정이 진행되게 되었다. 봉건적경제관계가 지배하는 조건에서 진행되는 상인들의 분화는 한편으로는 소상인들을 산생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소수 대상인, 상인자본을 낳게 하였다.

소규모행상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지방시장을 중심으로 대량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중요상업중심지들에서는 상인자본이 전례없는 규모로 늘어났다.

당시 상인들의 수중에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여러 부문에서 자본주의적경영이 장성하였으며 따라서 봉건적경제관계로부터 자본주의적경제관계로의 확대발전은 사회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 제기되었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공업은 《일국경제의 관건》이며 공업진흥은 《유국부민(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백성들을 잘살게 하는것)의 대사업》이라고 하면서 민족공업을 보호하며 발전시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민족공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쇠퇴하게 된것은 일제의 침략과 민족공업발전에 대한 봉건정부의 무관심성, 생산물을 무상으로 징수하는 반동적시책에 그 원인이 있다고 규탄하였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민족적인 식산회사의 건설》, 《산업진흥》을 주장하면서 민족공업발전을 위한 일련의 대책안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우선 대규모공장건설과 함께 소규모공장의 건설, 수공업의 발전을 이에 결합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자금이 적게 들고 쉽게 건설할수 있는 소규모적인 공장을 건설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큰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는데로 넘어갈것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민족공업발전에 필요한 자금은 개별적자본가들의 자본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한편 주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또한 공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육성정책을 실시하며 융자대책을 세울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이전부터 우리 나라에서 발전하여왔고 일정한 토대도 있는 부문들부터 먼저 발전시키면서 점차 전반적부문을 발전시킬것을 강조하였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현대적기계기술에 기초한 대규모공업의 창설을 강조하면서 기계제생산이 사회적으로 동을 절약하고 노동생산능률을 높일뿐아니라 상품의 가격을 낮추기때문에 많은 리윤을 얻을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자기들의 부르조아적립장으로부터 기계제생산의 우월성만을 일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것이 근로대중에게 미치는 영향, 노동강도의 제고, 노동일의 연장, 실업의 증대에 대하여서는 전혀 분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족공업을 발전시키는데 대한 애국문화운동가들의 견해는 자본의 규모가 크지 못하고 경제토대가 미약했던 우리 나라 신흥민족자본가들의 요구를 대변한것으로서 당시의 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한 진보적인 견해였다고 볼수 있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상업의 발전이 나라의 근대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활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상업발전에 대한 견해를 제기하였다.

그들은 우선 외국상인과 외국상품을 배격하고 국내생산물의 류통을 국내상인들이 담당하여 실현하여야 한다는것, 상인들에 대한 봉건적구속을 없애고 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는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또한 일제의 상업독점을 반대하고 민족상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상업회의소》들을 설립할것을 제기하고 그 창설을 적극 추진시켰다. 그리하여 1905년 한성에 처음으로 《상업회의소》가 나오고 1906년에는 평양, 부산, 원산, 인천 등 중요도시와 항구들에도 조직되었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상공업총론》, 《상업경제의 요소》, 《상업개론》 등 론문을 통하여 상업조직운영과 관련된 문제, 상업발전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문제 등을 리론적으로 전개하고 선전하였다. 상업발전에 대한 애국문화운동가들의 이러한 견해는 부르조아적요구를 담고있으나 당시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반영한것으로서 진보적인것이였다고 볼수 있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새로운 기술에 기초한 근대적경영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상품화률이 높은 부문 즉 자금이 적게 들고 회전률이 높은 과수업, 공예작물 재배업과 같은 생산부문에서부터 자본주의적경영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낡은 수공업적농기구를 현대적농기구로 교체하고 영농방법을 개선하며 특히 수리관개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돌릴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과 과학지식을 보급할데 대하여 제기하면서 《농방요론》, 《농업학》, 《농업경영론》 등 도서를 통하여 농업을 자본주의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방도들을 선전하였다. 농업발전에 대한 애국문화운동가들의 이러한 견해는 일제의 략탈을 막아내고 농촌에서 기술적진보를 이룩하며 근대적인 농업경영으로 이행할것을 주장한 진보적인 사상이었다고 볼수 있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근대적인 재정신용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일련의 견해도 제기하였다.

당시 우리 나라 봉건국가의 조세제도는 봉건통치배들의 수탈행위로 말미암아 심히 문란하였다. 한편 나라의 화폐제도도 봉건통치배들이 감행한 주화개약과 일제가 부산에 제1은행을 설치하고 은행권을 략발한것으로 하여 심히 혼란되어있었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당시의 혼란된 조세제도와 화폐제도를 비판하고 재정신용체계를 나라의 자본주의적발전에 유리하게 개편할것을 주장하였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자본주의적인 재정신용기관과 민족은행을 창설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재정금융토대를 쌓는것을 민족상공업발전의 필수적이며 선차적인 조건으로 제기하면서 《한 나라의 상공업이 개선발달하는 원천은 금융의 조화에 있으며 금융의 조화는 곧 은행에 있다.》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그들은 재정금융분야에 대한 일제의 침투와 그 해독성을 폭로비판하고 우리 나라자체의 민족은행을 창설할것을 주장하면서 민족은행의 자금은 우선 상인들이 일정한 금액을 내어 기본자금으로 하며 다음에 전국민이 저축운동을 벌려 은행자금을 보충조달하는 방법으로 해결할것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근면, 절약하여 식산흥업을 위한 자금을 저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어제의 절약은 오늘의 저축이 되며 오늘의 저축은 래일의 자본이 되어 국민경제의 발전력을 증진케 한다.》라고 하였다.

근대적인 재정신용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애국문화운동가들의 이러한 견해는 그것이 부르조아적관점에서 출발한것이지만 민족적재정금융토대를 쌓아 나라의 근대적발전을 이룩할것을 지향한것으로서 당시의 력사적조건에서는 진보적인것이였다고 볼수 있다.

2.3. 근대경제학의 이론적기초에 대한 견해

애국문화운동가들은 실학사상가들과 개화사상가들의 부르조아경제사상에 기초하여 자본주의경제관계에 대한 이론적분석을 심화시켰다. 자본주의적경제관계에 대한 그들의 이론적분석에서 중요한것은 국부, 실업, 분업, 교환, 화폐, 자본, 리윤에 대한 견해이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부르조아적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자본가들이 가지고있는 재부를 곧 국민의 재부, 나라의 재부와 일치시켜 국부라고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물산과 함께 자본가들이 가지고있는 화폐까지 포함시켰다. 그들은 물산의 개념에 대하여 《동서양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천조(자연물, 하늘의 조화라는 뜻) 및 인작의 물품을 통털어 그 나라의 물산이라 부른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은 물산에 인간의 로동에 의

하여 창조된것과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품을 포함시켰다. 한편 그들은 농업, 목축업과 같은 생산부문에서는 《자연의 조화》와 《인간의 활동》의 결합에 의해서만 생산물이 창조된다고 하였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물질적부를 늘이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 제기하였다.

그들은 우선 생산력의 발전에 의해서만 물산의 증대를 실현할수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물산의 풍부화를 이룩하려면 《물품제조방법의 급속개량》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로동도구를 개선발전시키고 발전된 기계기술을 받아들일것을 적극 주장하였다.

그들은 또한 비생산자를 축감시키고 생산자를 늘일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자연부원이 많지 못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놀고먹는 사람이 없이 모두 일한다면 물질적부를 증대시킬수 있다고 하였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물질적부를 늘이기 위한 방도로서 물질적 생산부문을 확대할데 대하여서도 강조하였다.

국부에 대한 애국문화운동가들의 이러한 견해는 나라의 물질적부를 늘이기 위한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지만 물질적부의 생산에서 노는 인간활동의 역할을 과소평가한것과 같은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실업(낮은 사회에서 공업, 농업, 상업, 수산업 등과 관련되는 기업)의 발전은 국부를 증대시키는 기본원천이며 국부의 증대와 실업의 발전이 부강국가 건설의 필수적조건》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우선 실업의 개념을 규정하였다. 그들은 실업은 자본을 선대하여 일정한 경영을 진행함으로써 리익이 생겨나는 경제부문들의 총체라고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업, 농업, 상업, 은행업 등이 속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또한 실업의 발전에서 농업, 공업, 상업의 호상관계를 해설하였다. 그들은 《농, 공, 상 3자는 상보상의(서로 보충하고 의존하는 관계)하여 발달한다.》고 하면서 공업과 농업에서 물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상업이란 있을수 없다는것 그리고 상업이 아니면 공업, 농업에서 생산된 물품이 실현될수 없고 공업, 농업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할수 없게 되며 따라서 재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애국문화운동가들은 공업, 농업, 상업의 호상관계와 그 역할을 재생산의 계기속에서 비교적 옳게 분석하였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상업과 교환을 동일시하면서 분업과 교환에 대한 견해를 제기하였다. 그들은 상업은 분업의 발전에 기초하고 그 분업은 자연의 관계에 의존하며 따라서 상업이 자연의 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그들은 분업의 발전이 공업의 발전을 조건지으며 경제발전을 촉진한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상업이 분업발전에 반작용하며 나아가서 경제발전에 영향을 준다는것이다. 즉 교환이 분업발전에 의하여 조성된 매개 부문들사이의 경제적관계를 실현함으로써 분업의 발전을 촉진한다는것 그리고 이러한 분업의 발전에 기초하여 확대되는 교환은 생산발전에 반작용하여 생산의 발전과 생산량의 증대를 보장하며 생산에 지출된 비용을 축감하게 한다는것이다. 이와 같이 애국문화운동가들은 분업에 기초하여 교환을 설명함으로써 분업과 교환의 호상관계, 그 의의와 역할을 여러 측면에서 일정하게 해명하였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화폐에 대한 일련의 견해를 제기하였다.

화폐에 대한 견해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화폐의 발생문제이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직접적인 물물교환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가지 불편을 극복하기 위하여 화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물물교환에서의 불편은 첫째로, 교환을 목적으로 하여 내놓은 물건의 교환이 자기에게 필요되는 물건으로 이루

어지지 않는다는것 둘째로, 《천차만별의 가격》을 가진 서로 다른 물건을 교환함에 있어서 《가격의 비례》가 일정하게 교환의 표준을 설정하여야 하겠는데 물물교환의 경우에는 이 표준을 접할수 없다는것 셋째로, 《수많은 화물은 분량과 경중이 있으니 이를 물물로 교환하자고 하면 그 평형을 완전히 하기 어렵고 손실이 없지 않다.》는것이다.

화폐에 대한 견해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화폐의 기능에 대한 견해이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화폐의 기능을 《교환의 매개》(유통수단의 기능), 《가격의 표준》(가치척도의 기능), 《가격의 척도》(지불수단의 기능), 《가격의 저장》(축재수단의 기능) 등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화폐의 기능들은 귀금속인 금과 은이 담당수행한다고 이해하였다. 그들은 화폐발생초기에는 소, 말, 가죽, 쌀, 그릇 등이 화폐의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문화가 발전한 지금에 와서는 귀금속인 금, 은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여러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에 의하면 금, 은과 같은 귀금속은 사회일반이 귀중히 여기며 운반에 편리하고 가격이 확고하다는것, 분할하여도 가격을 잃지 않는다는것, 물질의 분자가 모두 한모양이며 표면으로 인식하기 용이하다는것이다.

화폐에 대한 견해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화폐유통문제이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당시 봉건국가의 화폐정책을 비판하고 화폐유통문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들은 《화폐제도가 극히 문란하여 악화(가치가 떨어진 화폐)가 넘쳐나고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여 그 경제상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보존하지 못할뿐아니라 근래에 와서는 화폐의 교환이 심히 온전하지 못하므로 조만간에 사회적으로 운영하는 화폐가 결핍하여 나중에는 장이 문을 닫아버리는것과 같은 참상에 이르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유통화폐량이 상품화폐량에 관계된다는것을 이해하고있었으며 이로부터 국가의 담보성이 없는 악화의 람발에 따르는 화폐의 범람은 물품의 가격을 등기시킨다고 하였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화폐에 대한 실험과와 개화과의 리론을 더욱 발전시켰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자본과 리윤에 대한 리론적분석도 심화시켰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자본, 리윤의 개념규정, 자본의 원천, 자본의 구분, 자본의 회전에 대한 견해이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자본은 경영활동을 위하여 선대되어 그 소유자에게 리득을 가져다주는것으로서 리익을 목적으로 하여 경영활동에 투자한 자본가의 화폐적지출이며 리윤은 자본을 선대하여 경영한 결과에 얻는 리득이라고 하였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자본의 형성원천을 밝히기 위하여 절약, 저축, 자본 등 3자의 호상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절약은 저축의 기초이며 저축은 자본형성의 원천으로 된다는것이다. 그들은 자본과 저축을 갈라보았다. 그들은 《저축이라는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재화를 직접, 간접으로 생산수익의 공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절약하여 저축한 재화 그자체는 자본이 아니라고 하였다. 다시말하여 저축의 목적은 생산에서의 수익을 얻는데 있으므로 저축된 재화가 생산경영활동에 투자되어 리익(리윤)을 얻을 때에만 자본으로 된다고 하였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자본을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으로 구분하였다. 그들은 《자본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그것은 고정자본과 류동자본이다. 고정자본은 가옥, 토지, 선박, 여러가지 기계기구 등이고 류동자본은 여러가지 화물, 공채, 금전의 운영에 따라 그 리득이 그것을 가진자에게 돌아오는것》이라고 하였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자본의 회전을 촉진시키는것이 자본의 규모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된다고 하였다. 즉 자본회전의 촉진이 리윤의 크기를 증대시키고 증대된 리윤이 자본의 규모를 확대시킨다는것이다. 그들은 자본회전의 촉진방도를 주로 판매에서 찾았다.

이로부터 자본의 회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자본가들이 생산된 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것이 아니라 상인에게 먼저 실현함으로써 자본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자본과 리윤에 대한 애국문화운동가들의 견해는 자본주의경제의 기본범주들에 대한 분석에서 상당한 진보를 가져온것이라고 볼수 있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사람들의 경제활동은 일정한 합법칙성을 가지며 그 합법칙성을 해명하는것이 경제학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제의 개념을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류의 행위로서 유용한 화물(물질적부)의 획득과 사용에 관한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경제활동의 내용을 인간의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물의 획득 및 그 사용과정에서 표현되는 인간들의 활동으로 분석하였다. 그들은 경제행위의 본질에 대하여 《우리들이 욕망하는바를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로력이나 화물을 천연물에 가하되 설비의 분량이 적으면서도 수득의 분량이 많도록 하는것이니 즉 적은 로력으로써 큰 효과를 거두는 행위이며 재물로써 효력이 있게 하는 작용》이라고 규정하였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은 경제학에 대하여 《...재화를 리용하여 의식주의 필요를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활동하는것을 경제활동이라고 부르고 이 경제활동에 대한 리법(사물현상의 원리와 법칙)을 론구하는 학문을 불러 경제학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그들은 경제학을 생산 그자체에 관한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생산과 결부되어있는 인간들의 활동과 관련된 학문으로 리해하였다. 이로부터 그들은 경제학의 연구대상을 《우리 인류의 생활상 직접, 간접의 관계》에 있는 《사회경제의 현상》속에서 《생산, 교환, 분배, 소비 등에 관한 법칙》을 해명하는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애국문화운동가들이 경제학을 생산자체가 아니라 생산과 결부되어있는 인간의 경영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분석한것은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애국문화운동가들은 서유럽나라들에서 먼저 출현한 근대경제학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식민지로 전락되고있던 우리 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여 근대경제학을 체계화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진보성을 찾아볼수 있다.

3. 결론

애국문화운동가들은 민족자주의 립장, 애국애족적인 지향을 안고 계몽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지난날 일제의 어용학자들이 조선에서의 근대문명은 일본이 조선을 개항한 이후 일본의 영향밑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것은 황당한 꾀변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자본주의적관계가 일본의 영향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는것은 우리 민족을 멸시하고 우리 나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부인하는 그릇된 주장이다. 일제의 조선침략은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발전을 가져온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방으로 억제하였다.

애국문화운동가들에 의하여 제기된 우리 나라 경제사상은 이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우리는 애국문화운동가들에 의하여 제기된 경제사상의 내용과 그 진보성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근대발전이 이룩되었으며 이러한 발전은 일제에 의하여 백방으로 억제당하였다는것을 똑똑히 인식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애국문화운동가, 식산흥업, 상업, 근대경제학